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현황, 전망, 기독교적 조망

황호찬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I. 들어가며

근작 한 외국잡지는 실버월드에 대해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지구상 살았던 전체 노인인구의 2/3가 오늘날 생존해 있다. 하지만 1990 - 1995년 출생자 수는 1970 -1995년 출생자의 절반밖에 안된다. 갈수록 노인 수는 늘지만 이들을 부양할 젊은층의 수는 계속 준다는 뜻이다. 일부에선 첫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해 노후연금을 수령하는 2012년쯤에는 ‘노령화로 인한 불황’이 잇달아 발생할 것으로 우려한다.....그러나 꼭 그렇기만 할까. 급속한 노령화가 오히려 혁신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주택에서 자동차, 로봇, 전자제품,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세계시장은 노령화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에 의해 움직인다.... 50세 이상 연령층은 선진국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시장인 동시에 연금혜택 증가로 가장 부유한 계층이다.... 이탈리아에선 60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가 20세 이하 층 보다 많으며.... 베이비붐 세대는 젊은 층 문화를 평생 누리는 첫 세대가 될 것이다..... 50세 이상의 영국인 4명중 1명은 여전히 록 콘서트에 간다...”¹

요약하자면, 노령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 이들로 인해 사회적 부담이 급속히 증대될 것이라는 점,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령화가 오히려 혁신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의해 실버산업이 꽃을 피울 것이라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노인²은 더 이상 사회의 주변집단이 아니다. 비록 여전히 사회구성의 주력집단은 아니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더 이상 무능력하거나 소외된 집단이 아니다. UN 보고서³가 예측한 바에 의하면 2050년이 되면 60세 이상 노인의 수는 지금의 6억 명에서 20억 명에 이를 것이며,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금의 10%에서 약 21%로 증가될 것이다. 즉, 주위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다섯 명 중 한명은 60세가 넘는 노인이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급격히 느는 노령인구의 비중은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를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들 노령인구를 부양해야 할 비노인계층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의 증가와, 둘째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지속적인 수요의 증가다. 전자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해결책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반면 (예를 들어 늘어나는 노후연금 증가와 그에 따른 기금의 고갈 등), 후자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당사자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다.

¹ 뉴스위크 한국판 2002년 9월 25일자

² 노인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50세 이상, 60세 이상, 65세 이상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된다. 본 논문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65세 이상을 의미한다.

³ Report of the Second World Assembly on Ageing (UN, 2002)

특히 후자, 즉,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 이외에 민간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산업이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노인 서비스 산업, 소위 실버산업의 등장이다.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은 (1)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현황을 이해하고, (2) 앞으로의 전망을 논의함과 동시에, (3) 이를 기독교적 시각에서 조망하는데 있다.

II. 노인과 노인사회

(1) 노인인구의 증가와 과급효과

금세기 들어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연장되면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AD 1000년경 인간의 평균 수명은 25세, 1900년 경에는 47세였으며, 2000년에는 70세, 2050년에는 100세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게놈 프로젝트를 위시한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해 인간수명은 더욱 더 길어질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00년에 남자 평균 수명은 46세, 여자는 49세이었던 것이 1997년도에는 남자 71세, 여자 78세로 연장되었다. 2001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약 35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64%에 도달하고 있어 이미 고령화 사회 (aging society)에 진입하였으며, 2019년에는 14%를 넘을 전망이어서 유엔이 정하는 고령사회 (aged society)에 바짝 다가섰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견된다. <표 1>에 의하면 고령사회에 도달하는 연수가 미국은 71년, 프랑스는 115년, 이웃 일본의 경우는 24년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19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처방안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채 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표 1> 고령화 속도의 국제 비교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고령사회도달연수 (7-14%)	19년	24년	71년	115년
14-20%	7년	12년	15년	41년
7% 도달연도	2000	1970	1942	864
14% 도달연도	2019	1994	2013	1979
20% 도달연도	2026	2006	2028	202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12)

노인인구의 급증은 근본적으로 출산률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지속적인 상승에 기인한 것이지만 생산가능인구 (14세-64세)의 상대적 감소는 노인을 부양할 젊은이들에게는 커다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2001년 현재 노년부양비율은 10.6%로 생산가능인구 9.43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으나, 2019년에는 동 비율이 20.2%로 늘어나 5명의 경제활동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변재관, 2001). 나아

가 경제전반에 걸쳐서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예를 들면, 고령사회에 진입하면 노인복지비 지출의 급증, 연금 지급의 증가, 의료비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재정지출이 급증하게 되고 지속성장이 어렵게 되어 결국 국민 삶의 질이 저하된다는 주장이다 (KDI, 2001)

(2)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담당 부서인 보건복지부와 몇몇 사회 및 종교단체 이외에는 아직까지 사회 전반으로부터 지원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의 현황만 살펴 보아도 노인에 대한 국민 의식이 어느 정도 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표 2>는 2002년도 보건복지부 및 노인복지예산 현황이다.

<표 2> 200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보건복지부예산	3,045,726	3,896,784	5,310,021	6,272,738	7,749,477
노인복지예산	169,081	191,714	280,867	308,897	389,763
비율	5.55	4.92	5.29	4.92	5.03

위 표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보건복지부 예산 중 노인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수준을 수년째 유지하고 있으며 그 금액도 3천억원 정도로 소액에 불과하다. 이는 단순히 노인복지예산의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전체 국가 예산의 6% 수준에 머물고있는 복지예산의 절대적 부족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할당된 노인복지 예산도 그 지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무소득 계층의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지원 등에 한정되어 있어,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목표는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노인복지시설 중 주택관련시설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금액으로는 약 430억원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시설면에서 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 12월 31일 현재 288개 노인주거복지 시설에서 16,625명이 보호를 받고 있다.

<표 3> 주택관련시설 지원내역 (단위: 백만원)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합계
금액	1,516	8,169	28,800	5,202	43,687

자료: 보건복지부, 연도별 노인복지 예산 현황 (2002)

<표 4> 노인복지시설현황 (2001년 12월 31일 현재)

구분	시설종류	시설수	정원	현원	종사자수
무료	양로	93	6,465	4,726	747
	요양	89	6,634	5,541	1,678
	전문요양	41	3,605	3,106	1,567
	소계	223	16,704	13,373	3,992
실비	양로	4	174	131	30
	요양	14	1,134	875	263
	소계	18	1,308	10,06	293
유료	양로	25	2,526	1,259	329
	요양	11	495	234	162
	전문요양	7	480	391	230
	복지주택	4	1,004	364	51
	소계	47	4,505	2,248	772
합계		288	22,517	16,625	5,057

자료: 보건복지부 (2002)

<표 5> 재가복지시설 (2001년 12월 31일 현재)

구분	시설	인원	종사자	가정봉사원
가정봉사원파견시설	143	13,586	613	7,743
주간보호시설	142	2600	629	
단기보호시설	37	477	185	
합계	322	16,663	2,738	7,743

자료: 보건복지부 (2002), 기타시설: 노인복지회관 114개소, 경로당 43,372개소

치매치료 혹은 노인병 치료를 위한 전문병원 현황은 더욱 열악하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에서 치매의 유병률은 8.7%로 치매환자는 31만여명으로 추정된다. 독거노인도 8만여명에 이르며, 신체적·정신적으로 허약한 80세 이상의 후기고령자가 2000년 48만여명에서 2020년에는 134만여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한 노인 전문병원과 요양보호기관의 확충이 필요하지만 재정과 전문요원의 확보가 쉽지 않으며 노인 전문병원과 요양병원은 단지 13곳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 2001; 조선일보 2002년 10월 4일자 재인용).

한편,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31조)에 열거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현실도 매우 열악하다. <표 4>에 의하면, 2002년 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분류되는 가정봉사원 파견은 143개소, 주간보호는 142개소, 단기보호시설은 37개소이며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수는 약 1만 7천명 정도에 불과하여 재가 보호대상 노인의 약 2.5% 정도만이 이러한 정책의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999년 노인의 해를 맞이하여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고령사회대책 위원회를 구성,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2002년 7월 15일 발표하였으며, 가칭 ‘고령사회 대책 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여 노인정책의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였다. 이에 의하면 1) 노인소득보장 및 고용촉진, 2) 노인건강보장, 3) 교육기회 및 문화,여가 기회의 확대, 4) 실버산업의 활성화, 5) 노인보건복지대책 추진체계 구축 등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세계적 차원에서의 관심

노인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한 두나라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UN은 1982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제 1차 세계노인총회를 개최하고 노인의 자립 (independence), 참여 (participation), 보호 (care), 자아실현 (self-fulfilment), 존엄성 (dignity) 등 5대원칙을 천명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서 UN은 2002년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제 2차 세계노인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제 1차 회의에서 제안된 사항들은 재점검하고 특히 노인들의 사회, 경제, 정치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이를 위해, 전문기관, 기업, 연구단체, 비영리단체, 종교기관, 교육기관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노인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결의한 바가 있다.

(4) 민간부문의 대두

앞에서 열거한 노인의 복지문제에 민간부문이 참여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노령인구가 상대적으로 소수였을 뿐 아니라, 대부분 자녀와 동거한 관계로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독립된 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사회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독거 노인 수의 증가, 전반적인 경제수준의 향상과 연금제도의 발달로 인해 노인에 관한 수요가 창출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수요는 기존의 국가기관을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는 충족되지 못하였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의 부족과 그에 따른 시설 및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해 낼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1993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영리목적의 민간기업이나 개인도 유료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주택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하면서 실버산업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노인의 소득 구조가 최근 몇십년을 두고 변하고 있다. 즉, <표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88년에는 주 수입원이 자녀부양과 임금이었으나 1994년도에는 연금과 임금 비율이 증가한 반면, 자녀 부양비율이 감소하였다. 즉, 노인의 경제적 자립도가 높아졌다. 이러한 소득구조의 변화 역시 실버산업의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

<표 6> 노인소득구분 (단위: %)

소득의 원천	1988년도	1994년도
연금	1.2	3.9
자녀부양	63.7	44.3
임금	26.3	37.6
저축 및 재산	6.8	6.9
공공지원	1.8	3.5
기타	0.2	3.8
합계	100.0	100.0

자료: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Economic Surveys, 2001)

III. 실버산업의 현황과 전망⁴

실버산업을 ‘노인을 대상으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경제활동’ 이라고 정의한다면, 실버산업은 노인 혹은 머지 않은 장래에 노인이 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운영주체는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개인 혹은 기업이며, 여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원리가 적용되는 산업이다. 그동안 중소기업 혹은 몇몇 비영리단체에 국한되었던 실버산업은 최근에는 실버타운의 건설, 노인전문병원의 설립 등에 대기업이 참여하므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실버산업의 범위는 일반 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양하다. 그러나 노인이라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노후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업과 주거에 관련된 사업과, 남은 여생을 의미있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이를 좀더 자세히 구분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실버산업의 분류

종류	주요사업
여가산업 (recreation)	여행, 스포츠 등
보건관리사업 (health care business)	노인전문병원, 요양원, 의료기기, 간호, 노인 질환 약품 등
주거관리사업(housing business)	실버타운, 노인 Day Care Center 등
노인용품 판매사업 (sales of goods for the aged)	의류, 식품, 생활용품 등
서비스산업 (service business)	출판, 음반, 금융, 노인대학 등

자료: ‘실버산업의 실제’ (김태현.이인수, 1996) 및 ‘실버산업이 현황과 전망’ (세종대학교 실버마케팅연구소, 2002)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1) 여가산업 (recreation)

⁴ 실버산업의 현황에 대해서는 세종대학교 실버마케팅연구소에서 발간한 “실버산업이 현황과 전망”(2002)을 주로 참고하였다.

여행, 스포츠, 등산 및 낚시 등의 사업을 총칭하는 것으로 효도관광,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 금강상 관광, 수영, 에어로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표 8>은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노인인구의 관광실적이다. 비록 여가산업에 대한 수요가 일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창출되기 때문에 참여 인원수 및 관련 시장이 소규모이며 성장속도가 느리지만,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여가산업의 총 시장규모는 2001년 기준 약 82조원에 달하고 있어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실버마케팅연구소 재인용),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가산업 역시 그 전망은 매우 밝다.

<표 8> 2001년 관광실적

구분	국내관광		해외관광	
	관광참가자수	관광지출	관광참가자수	관광지출
60세 이상	12,408천명	3,310억원	319천명	4,606억원

자료: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 보고서 (2001)

(2) 보건관리사업(health care business)

보건관리는 노인들이 최우선으로 여기는 가장 필수적인 분야다. 이에는 의료, 간호, 영양, 제약 등 건강에 관한 전 분야가 내포되어 있으며 지금까지는 초기투자비용이 비교적 대규모여서 민간의 참여가 저조했다. 이 분야는 주로 정부 주도로 시행되어 왔는데 보건복지부 2002년도 예산에 의하면 약 1천 8십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2001년말 현재 노인전문병원 및 요양병원은 13개에 이른다.

비록 민간 참여가 저조하기는 하지만,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보건관리사업은 발전가능성이 가장 큰 부문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노인을 위한 약품판매의 지속적인 성장, 실버타운 건설과 병행한 노인전문병원의 개설, 주로 수입에 의존하였던 헬스케어와 관련된 각종 의료기기 (예, 보청기)의 생산 및 유통, 노인 간호를 위해 필요한 가정봉사원 (silver sitter) 및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그 범위 및 수익창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특히 간호 및 치료시설을 보유한 유료 요양시설의 확대는 가장 유망한 사업중의 하나로, 미국의 실버산업에서 이 부문의 매출규모가 가장 큰 사실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3) 주거관리사업(housing business):

노인이 머물 수 있는 장소와 그 관리에 관련된 사업이다. 전국적으로 양로원, 노인복지회관 등이 있어 노인 수요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가족제도에서 핵가족으로 이전되면서 주거에 관련된 투자 및 수요가 요구되고 있다. <표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재 주택시설과 관련된 2002년도 정부 예산은 약 4백 3십억원 정도이며 <표 4>에 요약된 바와 같이 노인을 위한 주거복지시설은 유.무료를 합하여 288개소, 이용인원은 1만 7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수용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작성하여 입법예고하였다. 동 시행령 취지문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실버타운 프로젝트는 2조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보건복지부의 예상에 의하면 2010년에는 주택관련 시장은 약 8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바 있다 (실버마케팅연구소, 2002, 재인용)

(4) 노인용품 판매사업 (sales of goods for the aged):

의류, 식품, 생활용품 등으로 세분되는 노인용품 판매사업 역시 전망이 밝은 편이다. 노인에게 적합한 의류 (예를 들어, 색상, 치수, 디자인 등)가 출하되고 있으며, 생식, 건강보조식품, 건강의약품 등의 제약관련 산업이 갈수록 고수익을 창출하는 분야가 되고 있다. 그 이외, 노인을 위한 생활용품으로는 휠체어, 기저귀, 침대, 욕조 등이 있어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시장규모가 약 1조엔 (약 10조원)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을 유추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머지 않아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대량 진출할 것으로 예견된다.

(5) 서비스산업 (service business)

노인을 위한 서비스 산업으로는 출판, 음반, 금융, 노인대학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다. 저소득층이 노인인구의 다수를 차지했을 경우에는 서비스산업이 발달할 여지가 적었으나, 소득의 증가에 따른 삶의 여유를 즐기하고자 할 경우, 여가산업과 더불어 서비스 산업이 발달할 것이다. 이미 많은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회고집 등을 발간하기도 한다. 특히 연금관리와 관련된 금융서비스는 서비스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전반적인 사회구성원의 소득이 증가되고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만을 위한 각종 금융상품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총괄하면 우리나라에서의 실버산업의 발전가능성은 매우 크며, 실버산업의 규모는 65세 이상 기준을 할 때 2003년에는 20조원, 2005년 25조원 정도이며, 5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2003년에는 57조원, 2005년에는 70조원 상당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IV. 실버산업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

(1) 노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지금까지의 노인에 대한 심층적 연구부족은 노인에 대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켜 왔다. 즉, 노인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쇠약해져 있기 때문에 비활동적인 것을 선호하며, 매사에 관심이 적으며, 과거에 익숙하므로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며, 정치나 문화 등 사회참여에 소극적이며, 집안에서 손자나 보며 소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사고는 잘못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노인들은 비록 신체활동능력 (등산, 스포츠 등)이나 개인적 성취 (사업의 성공 등) 등에서는 기회가 감

소하지만 정치활동, 혹은 사회활동에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인수, 2001)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Mannell and Dupuis (1996)의 연구에 의하면, 건강이 삶의 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그 다음으로는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었다. 사회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 (Bull, 1975), 권중돈과 조주연 (2000)은 우리나라 노인 68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교육정도, 일상생활 동작능력, 경제활동 참여여부, 주거편이도, 사회단체활동 참여도 등임을 밝힌 바가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노인들의 구매력은 예전과 비교하여 급격히 향상되었는데 이를 기반으로 왕성한 구매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내용도 단순히싼 것만을 찾지 않고 높은 품질에도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첨단 기술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여행을 즐기고 많은 시간동안 텔레비전을 시청하며, 이른 아침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즐겨 듣고 있었다 (Gibler & Lee, 2002).

이런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예컨대 정부의 노인정책이 최저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노인의 복지를 진정으로 향상시키려면 생존을 위한 기본 여건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삶의 지혜가 후손들에게 전수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 기독교 시각에서 본 실버산업의 방향설정

노인을 대상으로 영리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는 실버산업의 등장은 노인복지제고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우선 영리목적에 하는 민간섹타의 참여로 각종 시설의 운영, 기금의 관리, 혹은 제공되는 서비스 등은 정부주도에서보다 효율적이며 능률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반대로 이윤의 추구를 제일의 목표로 삼는 이유로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여지도 있다. 목표 이익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문제가 대두되며,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폐해도 예견된다.

이처럼 기존 비영리기관, 종교기관, 혹은 정부주도로 시행된 복지운영과는 달리 영리조직에 의해 운영될 경우, 자본주의 및 시장경제의 장점 및 단점이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노인이라는 특수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산업의 방향설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된 귀중한 존재이므로 (창 1:26), 비록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불리함이 있는 노인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 (dignity)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잠 16:31).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상행위는 단호히 거부되어야 한다. 즉, 노인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인생의 마지막을 의미 있게 보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각각 실버산업의 목적이 되

어야 한다.

둘째, 실버산업의 발달로 인해 노후에 좀더 여유있고 편리하며 의미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투자가 이루어지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극히 당연한 사회적 요구이다. 특별히 정부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여러가지 제약 요건으로 인해 시행하지 못한 부문을 실버산업에서 감당하는 것은 국민 복지의 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사회전체가 이러한 산업의 발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한다. 특히 실버산업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가 제거되어야 하고, 조세혜택이나 보조금 제도를 활성화하여 많은 기업인들이 실버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나아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정직하고 노인을 사랑하는 크리스천 사업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그러나, 실버산업이 본격적인 경쟁관계에 들어가며 철저히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선회할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 (저소득, 무의탁, 질병 노인 등)의 노인들에게는 호화로운 실버산업의 번창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실버산업의 등장으로 발생할 사회적 저항을 줄이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등이 지금까지 제공해 온 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높여야 한다. 즉,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와의 질적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정부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대책에 더욱 분발해야 한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서까지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차이로 인하여 고통을 느끼게 해서는 안될 것이며,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억눌린자, 소외된자, 어려운 자들에 특별한 관심이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넷째, 실버산업은 노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건 즉, 건강 및 주거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으나 좀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분야에도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도 필요하지만 노인이 직접 참여하여 삶의 보람과 자아실현 (self-fulfilment)을 성취할 수 있는 산업의 개발이 필요하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노인의 경험을 활용하여 할 수 있는 사업체의 운영 (예, 컨설팅이나 교육 등), 노인들간의 네트워크 구축, 실버타운의 건설과 그에 의한 공동체 구성, 각종 이벤트 사업, 노인대학 운영을 통한 교육사업의 활성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다섯째, 비록 핵가족화 현상을 멈추게 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이의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보호 (care)하는 사업에 배전의 관심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신이 실버타운의 건설, 가족과 동거 혹은 근거리 거주 시설 등의 정책입안에 고려되어야 한다.

(3) 교회의 역할

교회는 비록 실버산업이 발달하여 노인복지의 상당부분을 대신한다 하여도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실버산업이 할 수 없는 부분에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으며 (예를 들어 수익성이 너무 낮아 실버산업이 발전되지 않는 부분 등), 노인을 돌보고 그들로부터 지혜를 배우고 신앙의 전통을 잇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특히, 장애 노

인, 노인학대, 노인 범죄, 농어촌 노인들에 대한 문제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회는 계속해서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격려해야 하며, 기금조성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교회는 교회내의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배려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사회의 여러 비영리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가 실버산업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겠으나 이 때,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즉, 교회가 병원을 운영하거나, 호스피스 사역을 위한 별도 법인을 운영하거나, 선교회의 이름으로 사회복지회관 등을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교회는 근본적으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직이며, 따라서 이 양자 사이에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 즉, 아무리 노인을 위한다는 명분이 분명하지만 교회가 나서서 할 경우, 교회라는 비영리조직과 이윤추구라는 일반 기업들의 가치관에서의 충돌을 예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회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V. 결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처벌하실 때에 노인이 없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의미가 심장하다.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삼상 2:31). 나아가 젊은 세대가 노인을 학대하는 경우도 동일한 징벌이 임한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사 3:5).

이 땅에 노인이 없어지는 것은 곧 민족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록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므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지만, 크리스천 노인들이 줄어들거나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교회의 책임이다. 교회가 이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며,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뿐 아니라, 존경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므로 오히려 노인이 되면 교회를 더욱 더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버산업은 정부, 비영리단체, 종교단체에서 시행하지 못한 부분을 맡아 영리기업의 원칙과 영리 기업의 목표를 가지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교적 신종 산업이다. 우리는 이처럼 새롭게 대두되는 산업의 필요성에 동감하면서도 여전히 시장원리와 자본주의의 피해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때 기독교계의 역할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방향을 제시하고 방법을 제안하되 성경의 조망을 필요로 하며, 성경에 근거하되 세상을 등지지 않는 균형을 필요로 한다.

노인은 인류의 부담이 아니라 지켜야 할 보배다. 교회는 이를 지키는 파수꾼이자 길을 인도하는 선지자이다. 이 땅에 실버산업이 도입되어 발전함에 따라 기독교적 조망이 시급히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VI. 참고문헌

- 권중돈과 조주연,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00)
- 김태현, 이인수, 실버산업의 실제 (도서출판 하우, 1996).
- 변재관, 21세기 노인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 (노인복지연구, 2001)
- 세종대학교, “실버산업의 현황과 전망” (세종대학교 실버마케팅연구소, 2002)
- 이인수, 한국 노인의 정치 및 사회활동을 위한 과제 (노인복지연구, 2001)
- 윤은경, 노인복지시설의 호스피스 서비스 실태, (노인복지연구, 2002)
- KDI, 인구고령화와 재정의 대응과제 (2001)
- Bull, C.N., Voluntary Association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Replication Note. *Journal of Gerontology*: 73-76 (1975)
- Change and Economic Transfers between Gener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Gibler, K.M & E. Lee, “The Potential for a Seniors Housing Industry in Korea” working paper, presented at 2002 Asian Real Estate Society Meeting (2002)
- Mannel, R.C. and Dupuis, S (1996), Life Satisfaction. In J.E. Birren (ed.). *Encyclopedia of Gerontology* (vol. 2), New York: Academic Press. 59-64.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Economic Surveys, 2001)
- Sung, K.T., Family Support for the Elderly in Korea, *Journal of Aging & Social Policy* (2001)
- UN, “Report of the Second World Assembly on Ageing” (United Nations, 2002)